

# 宋服飾이 高麗服飾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 女子服飾을 中心으로 —

이 순 자

동신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ng Dynasty Mode upon Clothes and Ornaments of Korea Dynasty — As Regards Women's Clothing —

Soon Ja Lee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Dongshin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1. 「高麗圖經」에서 본 女子服飾
I. 序 論	2. 高麗佛畫를 통해 본 女子服飾
II. 高麗와 宋과의 關係	V. 結 論
III. 宋의 女子服飾	參考文獻
IV. 高麗의 女子服飾	

###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studied the influence of Song Dynasty mode upon clothes and ornaments of Korea Dynasty by Seo Gung's(徐兢)『SunWhaBongSa KoryoDoKyung』(宣和奉使高麗圖經) and in Korea Dynasty period, by Buddhist picture.

The clothing of the Song Dynasty was quite reserved and conservative, fewer variations and quiter colours thus conveying a feeling of simplicity and naturaness. Their clothings were no more luxurious than the clothing of Dang Dynasty.

We had read that when Seo Gung visited Korea for month, and then it is in Emperor Injong's reign(A.D. 1123).

Korea women's clothes and ornaments were followed by Song dynasty's clothing pattern as much as he took notice of Korea women's clothing.

Korea DoKyung showed Song women's clothing that whal clothing(華衣), Yuansam(圖經) were Korea women's a ceremonial dress and so, Koryo women's clothings were very influenced by Song's mode.

The conclusion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ound out that Korea women's a ceremonial dresses were very similar to Song's.

## I. 序 論

고려가 태조왕조에 의해 건국된 후 (918년) 멸망할 때까지(1392년) 457년간 중국대륙에서는 당이 쇠망하자 五代가 일어났고, 송이 中原정착을 꾀했으나 동북부에서는 거란, 요, 금이 송의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며, 미침내 몽고족이 일어나 원제국을 세웠고, 원이 패하자 다시 명(元)이 일어나 중국을 통일하였다.

고려복식에 대한 중국복식의 영향을 알아봄에 있어서 五代, 송(요, 금)복식의 영향기, 원복식의 영향기 및 명복식의 영향기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송 복식사의 영향기를 중심으로, 송복식중 여자복식이 고려의 여자복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과 高麗佛畫에 보이는 고려의 여자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송의 여자복식을 살피고 이로 인해 고려의 여자복식의 양식과 송의 여자복식의 영향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II. 高麗와 宋과의 關係

여진은 발해의 지배밑에 있다가 발해가 멸망하자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북만주에 있는 安靛部の 추장 烏邪束에 의해서 통일하게 되자 고려와의 관계는 악화되게 되었다. 여기에 고려는 숙종 때에 尹瓘이 別武班을 조직하여 여진족을 정벌하고 그곳에 성을 설치하였다.

그후 우아소의 아우인 아구타가 지배하면서 고려와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아구타는 금나라를 수립하고, 요나라를 멸했으며, 송을 양자강 이남으로 축출하고 남송이라 부르게 하는 한편 금나라가 中原의 霸者가 되었다. 따라서 고려에 대해서는 君臣관계를 요구해 왔으며, 고려는 금나라와 무력적인 투쟁도 하지 않고 항복하고만 것이다. 당시의 權臣 李資謙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개인의 집권욕만을 생각한 때문이었다.

고려와 송과의 관계는 거란의 세력이 확산되면서 미약해지고 다만 비공식적인 상인들만이 왕래할 정도로 거란과 여진이 흥기를 맞기 전의 친선관계는 유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거란의 세력이 약화된 때를 맞은 문종은 송과의 국교관계를 정상화 하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며, 송도 고려를 통하여 거란을 견제하려는 속셈으로 동상이몽적인 국교는 다시 이어지게 되었으나 여진족이 흥기하여 금을 건국하면서 변모하게 되었다. 송은 처음에는 금과 손을 잡고 요를 침공하여 멸망시켰으나, 다음에는 송이 오히려 금의 침략을 받고 수도인 변경

이 함락되는 등 강남으로 쫓겨나 南宋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고려와 송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송이 고려와의 국교관계를 이어가는 목적에는 거란과 여진족의 침입시에 고려의 군사력을 이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중립을 지키면서 송의 거란이나 여진족의 침입에 고려의 군사를 동원하려고 하였을 때나, 송이 금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원군을 요청했을 때나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옮기면서 수도가 함락되고 徽宗과 欽宗이 포로가 되어 구출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하면서 고려는 親宋정책을 취하면서도 군사적 개입없이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중립의 태도를 잘 유지하였다.

고려의 이와 같은 정책은 문화적, 경제적 목적에 두었다면 송은 고려에 대하여 정치적 군사적인 방향에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는 송으로부터 선진문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사신과 학생, 승려들을 파견시켜 그들의 발달된 유학이나 불교, 예술 등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려의 유학사상이나 불교문화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더욱 고려 인쇄술의 발달을 촉구한 송의 板木을 전래한 일이나 고려자기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한 宋磁의 수입도 고려가 송과는 다른 문물의 수입에 힘쓴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려는 공적인 사신을 통한 문물의 수입 정책과, 사적인 상인들의 왕래를 통해서도 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서적이나 비단, 자기와 약재, 茶와 향료 등을 수입함으로써 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반하여 고려에서의 수출품으로는 금, 은, 동과 인삼, 나전칠기, 화문석 등으로 무역도 성하였다.<sup>1)</sup>

송은 개국 초부터 文治主義를 지향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는 항시 나약하여 북방의 西夏, 금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비교적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되었으므로 농업, 수공업, 상업 그리고 해외무역 등 경제가 중국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하였던 시대였다.<sup>2)</sup>

또 宋代에서는 당 중기 이래 시작된 차 마시는 습관이 더욱 유행되었으므로 차의 재배가 四川, 福建, 江西省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정부는 차를 전매품으로 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하였다. 그리고 차의 특허상인들은 西夏, 契丹, 女眞 등에 수출하여 역시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 또 宋代에는 福建지방에서 처음으로 木綿이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후일 이것이 明代 면화산업의 기틀이 되었다. 그러므로 宋代는 차, 棉花 같은 특수작물이 상품화되었던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宋代의 대표적 수공업은 민수공업과 군수공업의 발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수공업은 방직, 도자기, 제지, 제철, 제판 등의 분야였고 군수공업은 무기생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분야는 기본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각기 분업적이고 전문화의 방향으로 발달되어 개개의 생산품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생산되었다. 먼저 방직산업을 보면 宋代 방직산업은 견직물 생산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江北, 定州 일대가 생산 중심이었다. 여기에서 생산되었던 견직물은 綾, 羅, 紬, 紗 등을 포함하여 40여종이 넘었는데 모두가 山水, 花鳥를 새긴 것으로 무늬가 다양하고 색깔이 아름다웠다. 宋代 이같이 질이 좋고 사치스러운 견직물이 발달하였던 이유는 宋代의 경제가 발달되어 견직물의 수요가 특수계층의 수요를 넘어 일반대중에게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도자기 산업 발달이 또 宋代 산업발달이 특징

1) 金相泰, 『한국사강좌』, 서울:진성사, 1990, pp. 132~133.

2) 이춘식, 『中國史序說』, 교보문당, 1991, p. 270.

이 되었다. 도자기 산업은 중국역대를 통하여 발달하였는데 宋代에는 차 마시는 습관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습관이 도자기 산업발달의 한 요인이 되었다. 宋代 도자기 산업의 중심지는 河北, 定州의 定窯, 河南, 汝州의 汝窯, 浙江, 遠州의 彰泉 등지였는데 여기에서 고급품이 제조되었으며 특히 靑磁가 유명하였다. 그리고 이 같이 대량 제조된 도자기는 국내수요를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 일본, 거란, 여진, 동남아시아 및 인도, 아라비아 지역에 까지 수출되었다.<sup>3)</sup> 宋代에는 또한 조선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兩宋시대에는 해외 무역이 활발하여 외국무역선이 중국입항은 물론 중국무역선의 고려,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및 아라비아 해역까지 진출하여 활동하였으므로 宋代의 조선업은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宋代에 이와 같은 무역선의 총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현재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0세기 사라센의 Suleiman의 기록에 의하면 大食國 상인이 중국에 오는 경우 그리고 중국상인이 중국에 오는 경우 모두 중국선박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같은 사실에 의해서 볼 때에 宋代에 조선업이 세계를 상대로 발전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宋代에는 해외무역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해안지역에는 廣州, 泉州, 明州, 臨安 등의 港市가 번창하였는데, 이 같은 港市에는 수많은 외국상인들이 향료, 진주, 상아, 보석, 약재 등의 남방물자를 가져와 중국의 금, 은, 도자기, 견직물 등과 교역해 갔는데 이들 외래상인들은 무역의 융성에 따라 그 수요도 많았고 또 장기 체류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市伯司를 두어 무역사무와 관세업무를 취급케 하고 또 蕃坊을 두어 외래상인들의 기거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sup>4)</sup>

특히 宋代 경제발달의 중심이었던 도시는 활기에 차 있었고 莊園의 속박과 구속이 없는 자유스런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여유있는 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민사회가 형성되었으며 宋代 서민문화가 도시를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또 송의 경제력은 무력이 약했던 송의 국제적 입장을 강화해 주는 기반이 되었고 또 찬란한 宋代 문화발달의 밑거름이 되었다.<sup>5)</sup>

宋代 학문과 사상의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실은 儒學의 혁신으로 일컬어지는 宋學의 출현이었다. 宋學은 일반적으로 理學, 道學, 性理學 또는 大成者의 이름을 따 程朱學 또는 朱子學이라고 불리운다.<sup>6)</sup>

宋學은 종래의 훈고적 學風과 治術위주의 經學 중심에서 우주생성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 또 유학에 실천적 과제로서 大義名分과 君臣父子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을 내세웠으므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 송 독재군주 체제를 유지 옹호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일본, 베트남에까지 전파되어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7)</sup>

王禎의 《農書》에 의하면 宋代에는 織物분야에서 많은 발명이 있었다. 北宋사대에 명주실을 잣는 방적기계가 발명되었는데 수력대마방적기라고 하였다. 이 방적기에는 32개의 물레가 락이 24시간 동안에 약 100근의 실을 자울 수 있었는데, 여자 노동자를 고용한 것보다 몇 배의 시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수력을 동력으로 움직였던 大紡車는 대마실을 자아 대마를 짜는데 능률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공정의 자동화를 이룩함으로써 중국 중세의 기술발달의 일변

3) 이춘식, 앞책, pp. 271~272.

4) 이춘식, 앞책, p. 276.

5) 이춘식, 앞책, p. 276.

6) 이춘식, 앞책, p. 283.

7) 이춘식, 앞책, p. 285.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계발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이에서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보면, 양국간의 사신이 교환되고 국교가 열린 것은 제4대 光宗 때부터의 일로서 친교를 맺어왔는데, 그러나 고려는 전기한 바 북방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자 그 압력 아래에서 對宋외교가 끊어지기도 하고 嚴正中立을 지킨 일도 있었다. 즉, 고려 肅宗 때에 송은 新興의 금과 손잡아 요를 공멸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도리혀 금에게 쫓기어 南遷하게 되자 더욱 親麗策을 쓰는 한편 金征伐의 간청까지 하여 왔지만 이 때에도 고려는 끝내 중립을 지켰었다. 그러나 양국의 친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 제11대 文宗 25년에는 정식으로 서로 國使를 보낸 일까지 있었으며(1071년), 이에 해상무역은 번영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고려의 송 문물의 수입은 貴族, 富豪의 생활에 사치심을 더하게 하여 弊端도 많았으나, 반면 고려의 학문, 예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이 때의 고려의 海上貿易은 송 뿐이 아니라 그 범위가 일본 및 멀리 사라센(Saracens:大食國)에까지 이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코리아(Korea:Corea)로 부르게 된 것도 이때부터의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라센인들은 고려에 와서 벼슬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西域界의 많은 문화를 들여와 고려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9)</sup>

고려국가의 성격은 貴族的 官僚主義의 中央集權國家였다. 그리하여 그 지배체제는 宮廷의 貴族兩班으로부터 지방행정의 최저단위에 이르기까지 피라밋형의 계층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려의 官人國家는 어디까지나 兩班中心이어서, 王權도 兩班貴族의 지지와 협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었고 그것없이 지위조차 보존하기 어려웠으나, 威臣 혹은 武臣의 跋扈가 심하였던 것도 이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를 그 발전과정에서 본다면 고려초기는 新羅的인 요소와 신라말 土豪와의 연합적인 냄새가 짙었으며, 제6대 成宗 이후 재편성기에 이르러 비로소 集權的인 고려의 성격을 띄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당·송의 요소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종교 특히 불교와 學術技藝面에 있어서도 신라시대로부터 계승해온 토대 위에 외래적 요소, 즉 唐, 宋, 遼, 元 등의 풍조와 영향을 다각도로 받아들여 고려문화의 내용을 다채롭게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高麗 磁器와 인쇄술은 송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송의 그것을 능가할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는 근대 조선왕조에서와 같이 閉鎖的인 정책을 쓰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절교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해외 여러나라와의 교통이라든지 외국상인의 출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민족의 구성요소를 풍부히 하기도 하였으니, 契丹人, 女真人, 蒙古人, 中國人, 日本人, 西域人 등 외민족의 귀화를 받아들여 이들을 포섭하고, 이에서 고려 생활문화의 폭을 넓히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고려 복식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들 이민족과의 접촉에서 온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복식에 대하여 중국복식이 끼친 영향은 고려국가의 성격으로 보아 그 관인 계급에 지대한 것이었다.<sup>10)</sup>

8) 이훈식, 앞책, p. 289.

9)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대학출판부, 1975, pp. 131~132.

10) 유희경, 앞책, 1975, p. 133.

### Ⅲ. 宋의 女子服飾

兩宋 時代の 통치사상은 이학이며 理學을 또한 道學이라고도 하였다. 程顥, 程이 형제와 朱熹가 대표였다. 儒學은 유, 불, 도가 혼용한 사상체계가 핵심으로 학술계에서는 “程朱理學”으로 지칭한다. 그들은 “理”의 철학원리를 내놓았는데, 父子, 君臣은 천하의 常理로써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三綱五常, 仁義爲本”을 선양하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멸한다(存天理而滅人欲)”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철학체계가 미학이론에도 영향을 끼쳐 송나라 때에 理性的의 美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는 흰 담장, 검은 기와가 본바탕색이 되었고, 회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수묵담채였으며, 도자기에 있어서는 單色釉가 뛰어났다. 또 服飾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당나라 때의 농염하고 화려한 색채의 반동으로 담아하고 고요한 기풍을 이룩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服飾의 간단, 소박, 청결, 자연스러움을 제창하였고, 또 지나치게 호화로운 것을 반대하였다. 袁采의 『世苑』에, “오직 청결을 힘써, 일반민중과 다르지 않았다(惟務潔淨, 不可異衆)”라고 한 것과 같다. 심지어 고종은 신하들에게, “금궤는 부인의 복식으로 오직 화사한 재화는 사물에 해가 되고, 사치란 풍속은 실제로 습속의 변화를 못 시킨다. 이미 중의를 경계하고 궁문을 추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金翠爲婦人服飾, 不惟非化害物, 而侈靡之習, 實關風化, 已戒中外及下令不許入宮門)”라고 하였다. 송 휘종까지도 그의 詞에서 또한 청담 우아한 아름다움을 부러워하였는데 살구꽃을 의인화하여, “투명한 얇은 비단을 잘라, 가벼이 몇 겹으로 하고, 담담이 연지를 두루 발랐구나. 새롭고 아름다운 화장, 곱고 향기 무르익어, 뇌주궁녀를 뇌살게 해(裁剪氷초, 輕柔數重, 冷淡인 脂勻注新樣정장, 艷溢香融, 差殺예珠宮女)”라고 묘사하였다.

방직업이 크게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絲織品의 생산량과 질, 아름다운 색채의 견직물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제조되었다. 품종은 錦 한 종류에 40여종이 있었고, 그밖에 羅, 絹, 綾, 綺 등이 있었다. 더욱이 絲는 가장 정교하여 그 변화가 대단히 미묘하였다. 문양 가운데에는 가지의 葡萄, 如意목단, 百花孔雀, 遍地雜花, 霞雲만, 穿花鳳, 寶相花, 天馬, 櫻桃, 金魚, 荷花, 團花 및 梅, 蘭, 菊, 竹 등이 있다. 그 밖에도 吉祥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錦上添花, 春光明媚, 仙鶴, 百蝶, 壽字 등 서민적인 흥취의 도안이 있다. 송대에는 또한 자수업이 대단히 발달하였다.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수화침전은 세밀하고 채색이 정교할 뿐만 아니라 山西南宋墓에서 출토한 자수 抹胸, 上衣, 紗裙帶 등은 더욱더 순박하고 생동적이고 광채가 빛난다. 마찬가지로 染織등의 공예가 모두 정교하고, 영롱하고, 가지런하고 수려하였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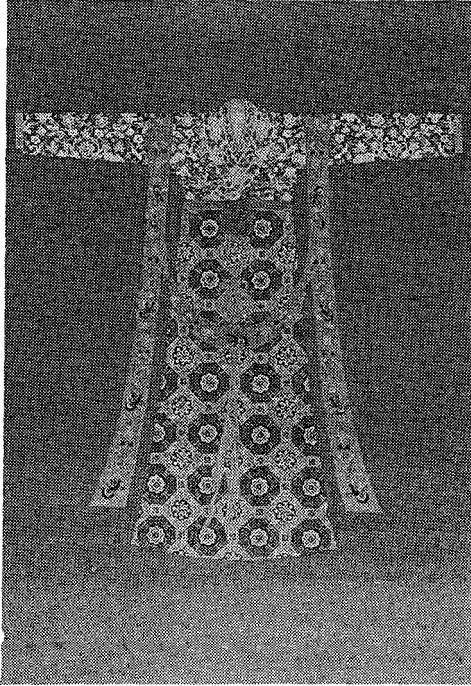
宋代 의복의 花紋은 織·染·수 등의 다른 가공법으로 하였다.

衣와 領에는 다양한 꽃무늬를 수 놓았다. 남자 官服은 花紋이 없는 紅色이었다.<sup>12)</sup>

宋代의 婦女服飾은 일반적으로 襦·襖(旋襖)·裳·背心·半臂·背心·抹胸·裹肚·披·裙·鞋 등을 중심으로 頭飾으로서 蓋頭·花冠 등이 있다.

11) 華梅著, 박성실, 이수웅 역, 『중국복식사』, pp. 169~170.

12) 深宗文편 『中國古代服飾研究』, 南天書局, 有限公司, 民國七十七年, p. 284.



<그림 1> 襦, 裙, 披帛. 高春明, 周汎, 「中國歷代服飾」, 圖 334, p. 195.

### 1. 襦

短襦의 양식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전국시대에 출현하였고, 대부분이 裙腰의 안에 넣어 입었다.

이 시기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휘감는 추세였고 오늘날 한국사람들이 입는 단유와 비슷하였으나 裙腰를 襦 안에 가운데 매지 않고 襦를 裙襖안에 입은 채 묶었다. 襦는 이전에는 겉에 드러내지 않은 속옷의 일부이었다. 唐代에 이 짧은 襦는 한 때 여자를 위한 중요한 上衣이었다. 唐代의 襦 그대로 宋代에 습용하였다. 이 襦는 여인들을 위한 평상복으로 사용되었다. 襦가 몸에 꼭 맞기 때문에, 작업복으로서 편리하였으므로, 하층계급의 여인들 사이에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

襦의 여밈은 주로 北의 Khitan과 Nuzhen 소수민족들의 영향으로, 右襟·左襟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다.<sup>13)</sup> 유의 색은 일상적으로 엷은 청색, 엷은 자주(whitish purple), 은회색, 파란빛이 나는 백색과 같이 조응한 혼합된 색상이었다.<sup>14)</sup> 宋代의 襦는 上身衣로 입었

고 비교적 短小하였으며 아래에는 裙을 입었다. 通常 襦色은 紅, 紫色이 많고 다음은 黃이었으며 貴子는 錦, 羅織物을 쓰고 刺繡를 하기도 하였다. 一般婦女는 褐色毛緞 褐色匹帛으로 하였고 廚房에서 團襖, 團裙을 입기도 하였으나 襦는 通常服의 一種으로 着用하였다고 한다.

宋代에서는 上下를 막론하고 婦女子의 通常 上衣로 前開直垂型 窄袖인 襦(衫, 襦, 襖)가 着用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 인물 복식에서 볼 수 있는 襦(短衣)와 같은 점이 많아 宋以前에 있어서의 복식문화 교류관계를 생각하게 하며 西周時代의 出土品에서 볼 수 있는 筒袖短衣 着用은 趙武靈王 胡服 採用以前에 漢民族間에 이미 西周時代부터 胡服이 着用되고 있었다는 說을 상기하면서 宋代의 窄袖短衣의 一般化가 무리가 없고 우리 나라 고려시대 복식 역시 통일신라 시대의 복식에 따랐다 하니 같은 경향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sup>15)</sup>

그러나 兩宋때의 통치사상은 理學이며 이 理學의 철학체계가 미학이론에도 영향을 끼쳐 宋나라 때에 理性의 美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는 흰 담장, 검은 기와가 본 바탕색이 되었고, 회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水墨淡彩였으며, 도자기에 있어서는 單色釉가 뛰어났다.

13) Zho Xun, Gao Chunming,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중국:학림출판사, 1987, p. 121.

14) Zho Xun, Gao Chunming, 앞책, p. 107.

15) 朴京子, 「福州南宋黃昇墓」出土服飾研究, p. 10.

또 복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당나라 때의 농염하고 화려한 색채의 반동으로 淡雅하고 고요한 기풍을 이룩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복식의 간단, 소박, 청결, 자연스러움을 제창하였고, 또 지나치게 호화로운 것을 반대하였다.<sup>16)</sup>

또한 宋의 崇寧·大觀년간(1102~1107)에 부녀자들은 上衣가 짧아지고 좁아지는 경향이었다. 宣和·靖康년간의 사이(1119~1126)에, 이 시기의 부녀자들의 上衣는 꼭 조이는 추세였다. 또 상의는 전후 좌우 주름이 사방 솔기를 띄우고 끈으로 가장자리를 묶어서, 당시에는「密四門」하였다. 小衣로 몸에 달라붙었는데, 전후좌우 사방솔기에 또 가장자리를 둘러「便當(편리함을 위주로 한다는 뜻)」이라고 하였으며, 또는「任人便(사람으리 편의에 맡긴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裁斷양식을 紹興(1311년) 이후에 이르러 풍기가 점차 제한되었다. 그러나 景定(1260년) 이후에 이러한 형식은 다시 회복되었다.<sup>17)</sup>

宋대의 窄袖短衣의 樣式은 胡服의 영향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 以上の 두가지 이유로 인해 窄袖短衣의 樣式이 형성되어 유행되었다고 추정한다.

## 2. 旋襖(襖)

일상생활의 복식으로 대부분이 솜을 넣거나 속옷을 바쳐입고, 襦에 비교하여 길고 腰袖가 너그러웠다.<sup>18)</sup>

## 3. 衫

衫은 홑겹으로 여름철에 주로 입었고 袖口가 넓고 길이가 일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그 질료는 紗羅였다. 宋詩中에 “얇은 비단의 삼자, 얇은 치마(薄羅衫子薄羅裙),” 우사삼은 미완성이고(藕絲衫未成) 가벼운 삼이 몸을 감싸고 향라가 푸르다(輕衫조體香羅碧) 등의 이야기는 그 바탕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다.<sup>19)</sup>

## 4. 大袖

대수는 원래 皇后妃嬪의 常服이었다. 소매가 폭이 넓어 大袖라 한다. 《宋史輿服志》에 의하면 “이는 常服 后妃大袖라 한다” 이후에 민간에 전하여 귀부인의 禮服으로 되었다. 《朱子家禮》에서는 이렇게 기재되었다. “大袖는 지금 婦女들의 袍인데 폭이 넓고 길어 길이는 무릎에 달았고 그 소매의 넓이는 한자 두치나 되었다” 또한 기재는 “妾들은 背子를 大袖로 대신하였다” 그러므로 등급이 낮은 婦女들은 大袖를 입지 못하고 背子로 대신하였다.<sup>20)</sup> 大袖袍는 歷代后妃六服의 樣式에서 이며 后妃, 命婦의 禮服이라 하겠다. 高麗時代 宋의 使臣인 劉達과 吳拭이 高麗의 卿糖娼女의 大袖衣와 色絲帶 大裙은 三代之 옷이라 하였고, 「高麗圖經」 貴婦條에 王妃服은 紅色(大紅衣)이며, 繪·繡를 하였다는 것과 朝鮮時代 宮中禮服인 圓衫, 활옷 樣式과 같아 高麗時代의 大禮服으로 着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16) Zhu Xun, Gao Chunming, 앞책, p. 106.

17)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p. 285~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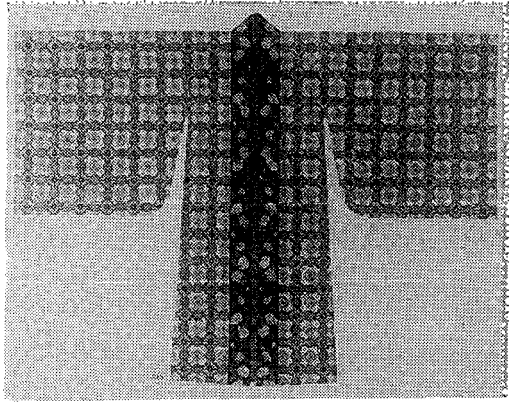
18) 華梅著, 박성실, 이수용 역, 「中國服飾史」, 서울: 경춘사, 1992, p. 156.

19) 華梅著, 박성실, 이수용 역, 앞책, p. 155.

20) 華梅著, 박성실, 이수용 역, 앞책, p. 155.

21) 朴京子 「福州南宋黃真墓」, 出土服飾研究, 生活文化研究, 1989, p. 7.





<그림 2> 大袖. 高春明, 周帆, 「中國歷代服飾」, 圖 330, p. 188.

## 5. 背子

直領對襟이 위주이며 前襟은 紵수를 달지 않았고, 소매는 넓고, 좁은 두가지 형식이 있었다. 衣長은 무릎에 가지런하고, 또 무릎 위까지 오며, 아니면 무릎을 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북송아빠까지 오는 것 등 몇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길이는 같지 않았다. 그 밖에 좌우 겨드랑이 밑을 길게 텃으며, 아마도 遼服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지만, 또한 옆을 트지 않은 것도 있었다. 송나라 때 위로는 황후귀비로부터 아래는 노비, 시종, 광대, 약인 및 남자가 한가로이 거할 때 모두 즐겨 입었는데, 편안하고 전아한 아름다움을 취하였다. 服飾중 背子가 가장 특색이 있으며, 송대

남녀가 모두 입었고, 더욱이 예복으로 성행하였던 복식이다.

이 트임의 길이는 60.96cm(2 feet)이상으로 양측에 트였으며, 다른 의복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sup>22)</sup>

窄袖袍는 宋代 貴婦가 연회에 참석할 때나 外出時에 입는 일상복으로 北宋 末期 宮廷畫院 畫家 劉宗古가 그린 “瑤台步月圖”중의 仕女가 입고 있고, 山西晉祠聖母殿의 侍女塑像外衣와 河南百沙 宋墓壁畫女主人의 服飾, 常州市 南宋墓 出土漆奩上的 刻畫의 仕女圖, 福州南宋墓 出土의 壽山石雕女侍傭이 모두 合領對襟窄袖袍를 겉에 착용하고 있다. 이들은 兩襟이 벌여져 있고 領, 襟, 袖, 下擺緣 및 옆터짐에 모두 花邊이 대어져 있다.<sup>23)</sup>

大袖袍와 窄袖袍는 服飾設計 및 細部장식이 매우 비슷하다. 이것으로 窄袖袍는 宋代에 盛行한 貴婦의 服飾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三才圖會에 의하면 北齊의 褌子에서 발전해 내려온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王宇濤는 大袖는 皇后嬪妃의 常服에서라고 하며 兩袖가 寬大하고 貴族婦女子의 禮服이며 一般婦女子는 입을 수 없었고 背子로 代用하였다고 한다.<sup>24)</sup>

또한 이 窄袖袍를 背子라 하였고 便服外衣의 一種이며 宋代 婦女에게 유행하였다고 한다. 其制는 對襟이며, 앞이 열려있고 띠나 고름, 단추 등이 없어 속에 입은 옷이 보인다. 길이는 무릎을 지나 치마끝에 달기도 하며 左右 겨드랑이 밑 옆선이 터져 있다고 하였다.<sup>25)</sup>

宋의 婦女 窄袖袍는 王宇濤가 胡服化된 袍라고 하였으며, 窄袖袍는 背子라 하고 背子는 半臂라고 하니 통일신라시대의 興德王服飾禁制에 眞骨大等에서 四頭品까지의 男女가 半臂를 입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高麗時代에도 男女가 이러한 窄袖袍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朝鮮時代 옆트인 여러가지 袍와도 關係가 있을 것으로 본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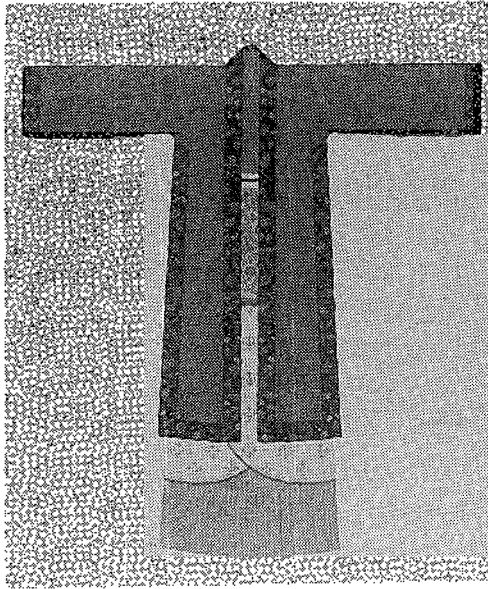
22) Zho Xun, Gao Ghunming,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중국: 학림출판사, 1987, p. 119.

23) 朴京子, 「福州南宋黃昇墓」, 出土服飾研究, 生活文化研究, 第三輯, 1989, p. 6.

24) 王宇濤, 中華服飾圖會, 世界地理叢書, p. 123.

25) 王宇濤, 앞책, p. 177.

26) 朴京子, 앞책, 1989, p. 7.



<그림 3> 背心. 高春明, 周汎, 「中國歷代服飾」圖 319, p. 182.

부녀의 평상시에 입는 下常이며 만당의 유품을 보존하고 있으며, “千褶”, “百迭”褶이 성행 하였는데, 송대의 특징을 이루었다. 치마는 길고 치마허리는 겨드랑이 밑으로부터 허리까지 오는 것이 보편적인 복식이었다. 허리에 실크띠를 매고, 아울러 綬環을 패용 아래로 드리웠다.<sup>27)</sup>

“百迭”은 재료를 6폭, 8폭, 12폭을 사용하며 그 가운데 細간을 두고 있으며 치마 色相은 일반적으로 上衣에 비교하여 곱다. 녹색, 청색, 백색, 살구빛 나는 노랑색과 같은 강한 색을 사용하였다.<sup>28)</sup>

宋代부녀자들이 당나귀를 타고 나들이 할 때 또 「旋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앞뒤로 띄어져 있어 말을 탈 때 편하다. 이러한 旋裙은 京都의 기녀들에게서 처음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일반사대부 집안에서 서로 모방하게 되었다. 궁중에서 궁중의 妃嬪 등은 앞뒤가 막혀 있는 裙을 입었는데, 길고 둥글게 둘러져 있어서 「趕上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裙은 일반적인 裙과 달라서 당시에는 기이한 복장으로 여겼다.<sup>29)</sup>

또한 金東旭의 增補韓國服飾史에 女子의 裳은 傳統的인 高句麗의 裳에서 발달하고, 다시 唐의 裙이 들어와 貴婦人條의 黃絹裳(秋冬) 등으로 發展하고 婢妾條에 나오는 旋裙은 八幅으

## 6. 半 臂

원래는 무사의 복식이며 소매가 짧기 때문에 半臂라고 지칭하였다. 당의 여인이 즐겨 입었고 宋代의 남자는 안에 입었고, 여자는 겉에 입었다.<sup>27)</sup>

## 7. 背 心

소매가 없고 양당과 비슷하였다. 半臂, 背心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通對襟이었 고 그 구별은 半臂에 袖長을 가하면 背心이 될 수 있고, 半臂에 소매를 떼어내면 背心이 된다. 양당의 어깨부위에 紵를 가 하는 것이 같지가 않다.<sup>28)</sup>

## 8. 裙

宋代에 있어서 여인의 裙의 樣式은 唐 王朝로 부터 전래된 것으로, 深紅色裙 (garnet skirt), 칠간군과 繡놓아진 수자 직의 비단 裙도 있다.

27) 華梅著, 박성실, 이수웅 역, 앞책, p. 156.

28) 華梅著, 박성실, 이수웅 역, 앞책, pp. 156~157.

29) 華梅著, 박성실, 이수웅 역, 앞책, p. 157.

30) Zhy Xun, Gao Chuming,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학림출판사, 1987, p. 107.

31)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p. 285~296.

로 만들고 이를 휘둘러 이를 옆구리에 끼는 얼마전 兩班婦女나 妓女가 입고 있던 치마와 그 제도가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金英淑의 韓國服飾史辭典에, 旋裙은 고려시대 천민계급의 부녀자들이 입던 치마, 8쪽으로 만들며 길이도 대단히 길어서 부녀자들이 보행시(步行時)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는데 여러 겹 중첩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華梅의 朴聖賢, 李秀雄(譯)에 中國服飾史에 치마 양식 가운데는 또한 치마의 양변, 앞뒤를 터놓은 旋裙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말타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처음에는 도성의 기녀들 가운데 유행하였고, 뒤에 사대부, 서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다시 발전하여 越上裙이란 長裙의 양식을 창출하였다고 한다.

宋代婦女乘驪出行時에 旋裙을 입었으며 前後가 열려 乘騎에 便하였다고 한다. 旋裙着用은 京都女妓로부터 始作되었으며 後에는 一般 士大夫家에서도 입었다 한다.

그 밖에 理宗朝 宮中妃嬪 등이 前後가 덮이는 裙을 땅에 끌리게 着用하였는데 「趕上裙」이라고 하였다.<sup>32)</sup>

이상의 문헌 가운데, 周錫保의 「中國古代服飾史」에 宋代부녀자들의 「旋裙」은 앞뒤로 띄어져 있어 말을 탈 때 편하다하고 있고, 또한 華梅의 「中國服飾史」에는 치마의 양변, 앞뒤를 터놓은 “旋裙”이 있었는데……라는 내용이 있다.

전자, 후자 모두 앞뒤가 띄어져 있음은 같으나 華梅의 「中國服飾史」는 양변과 앞뒤를 터놓은 것이 旋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周錫保, 華梅의 공통점은 앞뒤가 트였다고 하고 있어 말을 타는데 편리하기 위해 앞과 뒤가 트인 일종의 衣裳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高麗의 袿裙 또한 宋의 旋裙 樣式에 영향이라고 본다.

宋代의 裙은 褶襖裙, 單裙(中央重幅裙), 旋裙, 夾裙, 趕上裙의 種類가 있어 그 着用이 用途에 따라 多樣했으리라고 생각되며 褶襖裙의 경우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高句麗 壁畫에서 볼 수 있는 婦女의 基本服飾이다.

宋代의 褶襖裙의 형태, 구성, 소재, 색, 착장 방법 등은 우리나라 朝鮮時代와 現代의 치마와 거의 同一하다. 노인, 부녀, 또는 농촌의 농녀들은 대부분이 심청색의 치마를 입었다. 치마의 재료는 紗羅가 위주이며 도안을 수놓거나 주옥을 점칠시켰다.

치마의 양식 가운데는 또한 치마의 양변, 앞뒤를 터 놓은 “旋裙”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말타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처음에는 도성의 기녀들 가운데 유행하였고, 뒤에 사대부, 서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다시 발전하여 “越上裙”이란 長裙의 양식을 창출하였 다.<sup>33)</sup>

## 9. 袴

漢族의 옛 고는 襟이 없었기 때문에 裙을 곁에 입었는데 그 군의 길이는 발까지 내려왔다. 노동부녀도 또 홀 합당고를 입었고, 군은 입지 않았으나 그것은 마땅히 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宋代의 풍속화가인 王居正의 「紡車圖」 가운데에 아이를 안고 베를 앞에 앉아 있는 젊은

32) 朴京子, 「福州南宋黃昇墓」, 出土服飾研究, 1989, pp. 15~16.

33) 華梅著, 朴성실, 이수용 역, 앞책, p. 159.



<그림 4> 비녀, 儒裙, 披帛과 婦人  
高春明, 周汎, 「中國歷代服飾」, 圖 335, p. 191.

부인과 실을 고르고 있는 늙은 부인은 모두 東口長끈을 입고 있다.

#### 10. 蓋 頭

5척 좌우이며, 검정비단으로 만들었다. 여자의 나들이 할 때 얼굴을 가렸는데, 나중에는 홍색의 비단으로써 얼굴을 가렸다. 혼례일에는 신부는 반드시 首服을 입었는데 이와 같은 습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sup>34)</sup>

#### 11. 花 冠

花冠은 당나라 때에 처음으로 보이지만 絹花를 채용하였기에 挑, 杏, 가(荷), 포, 도를 종합하여 관위에 꽃을 수 있어서 “一年景”이라고 일컬었다. 남녀 모두 쓸 수 있었다.<sup>35)</sup> 관리들은 모란, 작약, 장미 꽃송이 등을 冠에 꽂았다.

### IV. 高麗의 女子服飾

고려시대의 복식의 변천을 고려사 輿服志 序文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東國은 三韓으로부터 儀章服飾이 국풍을 따르다가 新羅 太宗(武烈王:金春秋)에 이르러 唐 儀를 칭하여 드러다가 襲用하니, 이 후에 관복의 제도가 중국에 어느 정도 比擬하게 되었다.  
고려 태조는 개국초 일이 많고 초창가이기 때문에 신라의 舊制를 그대로 따라 사용하였다. 光宗에 이르러 비로소 百官의 公服을 정하니, 이에 尊卑, 上下의 等威가 밝혀졌다.

34) 華梅著, 박성실, 이수용 역, 앞책, p. 161.

35) 華梅著, 박성실, 이수용 역, 앞책, p. 161.

顯宗이 남쪽에 蒙塵하게 되며, 文籍이 散逸되어 제도를 실행함이 어떠하였는지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다.

毅宗朝에 平章事 최윤의가 租宗의 憲章을 모으고 唐制를 가려 섞어서 古今の 禮를 詳定하였는 바, 위로는 儀衛, 鹵簿에 미치고 아래로는 白官의 冠服이 실리지 않음이 없어 一代의 제도가 갖추어졌다.

원에 服事한 이래로 開剃辨髮하여 胡服을 입기를 거의 백년이나 된다.

明太祖 高皇帝가 恭愍王에게 冕服을 賜與하고 왕비, 군신에게도 賜服이 있어, 이로부터 衣冠 文物이 새로이 옛날 제도로 돌아갔다.

이로써 볼 때 고려의 服飾制度는 그 변천과정으로 보아서 3期로 구분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우리 복식 위에 唐制, 宋制 등의 복식이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에는 원의 服屬으로 말미암아 蒙古族의 복식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았고, 끝으로 高麗末葉에 내려와서는 원의 쇄망과 더불어 新興 明의 제도를 본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圖經』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해마다 信使를 보내고 누차 襲衣를 받아들임으로써 華風에 점점 젖어 옷이 아름다워지고 하나 같이 송의 제도를 좇고 있다고 하였거니와,<sup>36)</sup> 其實 제4대 光宗으로부터 제17대 仁宗에 이르기까지 50~60년간 누차의 賜衣로 徐兢이 來朝한 仁宗 元年(1123년)에는 그의 주목을 끌 만큼 제도면에서 송을 좇고 있었던 것이다.<sup>37)</sup>

송의 제도에 이르는 동안에 중국의 제도 변천을 중국의 복식사를 통해 살펴볼 때, 漢六朝에서 隋制가 나오고, 隋制에서 唐制, 唐制에서 宋制가 비롯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들어온 중국제도를 우리 나름대로 발전시켜 본 일은 없었으며,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賜典冠服』을 통하여 언제나 既成의 모델을 가져다 입고는 하였었다.<sup>38)</sup>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배자인 관인계급에 있어서의 제도상 변천에 불과한 것이었고, 피지배계급인 서민층에 있어서는 上代사회의 복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유의 복식을 그대로 답습服用해 왔던 것이다.<sup>39)</sup> 송으로부터는 제11대 文宗 32년 6월에 宋 神宗으로부터 賜衣 2대가 있었으니, 이에 紫花羅夾公服 1領, 淺色花羅汗衫 1領, 紅花羅繡夾三첩 1건안 紅花羅繡夾包 두 1조, 紅花羅繡帛 1조, 白綾夾袴 1腰, 靴 1兩에 紅透背袋盛紅羅繡夾複 2조, 各紅透背袋盛紅羅繡複 1조, 腰帶 2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40)</sup> 徐兢의 『高麗圖經』에 보이는 복식은 몽고의 풍속이 들어오기 전의 고려의 복식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宣和奉使 高麗圖經』은 송의 徽宗 宣和 5년 즉 고려 仁宗 元年에 正使 給仕중 路允迪, 副使중 書舍人 傅墨卿이 송에서 來朝時 그 一行中 재할관으로 함께 왔던 徐兢이 在留 약 1개월 남짓한 사이에 見聞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高麗圖經』은 외국 사신의 走馬看山格의 見聞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로 하고 흥미있는 것만 기록하여 조루한 것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41)</sup> 『高麗圖經』에서 본 고려의 여자복식은 다음과 같다.

36) 徐兢, 『宣和奉使 高麗圖經』, 卷七冠服 參照

37)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대학출판부, 1975, p. 138.

38) 유희경, 앞책, 1975, p. 138.

39) 유희경, 앞책, 1975, p. 135.

40) 유희경, 앞책, 1975.

41) 유희경, 앞책, 1975, p. 138.

## 1. 「高麗圖經」에서 본 女子服飾

### 1) 貴婦女服飾

『부인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분은 발랐으나 붉은 연지를 하지 않았고, 눈섭은 버들잎 모양으로 가늘고 긴데, 흉조羅 3幅에 길이 8尺이나 되는 夢首를 쓰고 눈만 내어 놓았다.

두루마기는 남자와 같은 白紵袍를 입었으며, 바지는 文綾으로 만든 寬袴에 안은 생초를 바쳤고, 그 통을 넓게 한 것은 몸에 붙지 않게 하려고 해서다. 그리고 여인 檄攪勒巾에는 采도로 金鐸을 매어달라고 錦香囊을 찾는데, 많이 차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가을과 겨울철에는 黃絹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는데 그 빛에 질고 얇은 것이 있었으며, 위로는 公卿大夫의 아내로부터 아래로는 庶民의 아내와 遊女에 이르기까지 그 제도에 다를 바가 없었다.<sup>42)</sup>

또 『高麗圖經』에서는 아직 出嫁하지 않은 貴女의 복식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으니, 이에서 보던 王府小女의 복장은 披髮하지 않고 黃衣를 입었다고 하고 있다.

### (1) 頭飾

『高麗圖經』에서 보던 出嫁前 여자는 紅羅로 머리를 묶고 그 餘髮은 뒤에 내린다고 하였으며, 婦女의 계양은 貴賤없이 동일하여 머리를 틀어서 絳羅로 묶고 여기에 작은 비녀를 꽂았으며 餘髮은 뒤에 내려뜨린다고 하였으니,<sup>43)</sup> 이것이 흔히 하던 修髮의 형식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婦女 계양에 대하여서는 宋史高麗傳이나 文獻備考 사예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高麗圖經』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본다.<sup>44)</sup> 그것은 중국의 墜馬계와 비슷한 것으로 이 名稱은 말에서 떨어졌을 때의 여자들의 머리모양과 같다고 해서 부쳐진 것이라고 한다.

이 墜馬계에 대하여 『高麗圖經』에 실린 것을 보면, 송의 崇寧年間(고려 肅宗 8년)에 사신 劉遼와 吳拭 등이 來朝하여 七夕에 宴會를 베풀었을 때, 館伴使 柳伸이 女倡을 보고 劉遼와 吳拭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여인의 빗은 머리가 느러진 것은 필시 옛날부터 있던 墜馬계일 것이라고 하였더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墜馬계는 東漢의 梁冀의 妻 孫壽가 한 것으로 법도에 맞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추마계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쪽지는 舊俗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sup>45)</sup>

고려의 부인들은 나들이 할 때 검은 羅로 만든 夢首라는 것을 머리에 썼다고 하였으니, 夢首는 일명 蓋頭라고도 하였다.

이 夢首는 세폭에 길이 여덟자나 되는 것으로 이마에서부터 머리를 내려덮고 다만 面目만을 나타냈으며 그 나머지는 땅에 깔게 하였는데, 그 값이 金 1斤과 맞먹었다고 한다.<sup>46)</sup>

이 夢首는 五胡의 西域 婦女의 頭飾이 중국의 隋·唐을 거쳐 내려오던 것이 고려에도 들어

42) 徐兢「宣和奉使 高麗圖經」卷二十 婦人 貴婦條 參照.  
43) 徐兢「宣和奉使 高麗圖經」卷二十 婦人 父子條 및 賤使條 參照.  
44) 宋史、高麗傳、文獻備考四의고 參照.  
45) 徐兢「宣和奉使 高麗圖經」卷二十 婦人 父子條 및 賤使 參照.  
46) 徐兢「宣和奉使 高麗圖經」卷二十 婦人 賤使條 參照.

온 것이라고 하는데, 당에서는 이를 羸離, 惟胃, 蓋頭라고 하였다.

그런데 高麗는 일찍이 海上貿易이 번영하여 西域의 사라센(Saracen:大食國)과도 交易이 있었고, 사라센사람들은 高麗에 와서 벼슬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西域界의 많은 文化를 들여와 高麗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고 하니, 이 사라센女人들이 內外를 하기 위하여 머리를 덮고 눈만 내놓는 풍습이 직수입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은 그 後繼者들인 아랍女人들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풍습이기도 하다.<sup>47)</sup>

다시 『高麗圖經』에는 公卿貴人の 妻가 출입할 때는 幘羅로 蒙首를 하고 數三人이 奴婢를 데리고 말을 탔는데, 말위에서는 笠을 더 썼으며 王妃는 笠을 紅色으로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에 馬車와 籃輿가 없었던 관계이며, 이 制度 또한 唐의 武德, 貞觀年間に 宮人들이 騎馬할 때 썼던 羸離의 遺法이라 하였으니,<sup>48)</sup> 당시 宋에서는 이미 女人 騎馬의 風習이 없어졌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의 貴婦人들이 외출할 때 蒙首에다 笠子를 더 쓰고 말을 탔다는 풍습은 언제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朝鮮時代에 있었던 풍습이었던 것이다. 그러하여 그 모습은 蒙首 위에 다시 笠子를 쓴 것이 아니고 蒙首 밑에 笠子를 쓴 것이었다.<sup>49)</sup>

## (2) 服 飾

袍는 白紵로 하여 입었으며, 그 制度가 男子의 袍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 袍에 橄欖나무 紋樣이 있는 허리띠(橄欖勒巾)를 매었고, 허리띠에는 5色の 찬란한 采조로 金鐸(금방울)을 매어 달았으며, 또 사향과 같은 향료를 넣은 금낭 등을 찾는데, 이러한 폐물이 많은 것을 귀히 여기고 자랑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高麗圖經』에는 또 『손에 부채(선)를 들었다 하더라도 손톱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 하여 흔히 손톱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 하여 흔히 絳嵐으로 덮었다』하였으니, 이 장냥은 마치 조선왕조시대 여인 袍衫에 달린 汗衫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褻 안에는 유와 常을 입었다. 평상시에는 이 袍를 벗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0)</sup>

『高麗圖經』에서 보면 『舊俗 여자의 服은 白紵衣, 黃裳으로 위에는 公侯貴家로부터 아래는 民庶의 妻妾에 이르기까지 대개 無辨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徐兢이 고려를 다녀간 전후의 풍속은 白紵衣, 黃裳이 상하 婦女의 通服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同書 供張조에는 前掲한 바 『紵衣는 곧 中單이다. 夷俗은 純領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왕에서부터 민선에 이르기까지 남녀 할 것 없이 이를 입었다』고 하고 있다.

常은 가을과 겨울에는 주로 노란색 치마를 많이 입었으며, 그 색은 짙기도 하고 옅기도 하여 上下가 그 제도에는 구별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왕비 복색만은 紅色이어서 여기에는 아름다운 수를 놓았다고 하는데, 조선왕조시대 여인들의 盛裝으로 黃纁紅裳이나 綠衣 紅裳이니 하는 홍색 치마와 홍색 바탕의 『스란치마』등은 이 고려 왕비 복색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

47)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대출판부, 1975, p. 210.

48) 徐兢 『宣和奉使 高麗圖經』 卷二十二 雜俗女騎參照.

49)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대출판부, 1975, p. 213.

50)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대출판부, p. 213.

각되기도 한다.<sup>51)</sup>

旋裙이라는 것을 입었다. 이 旋裙은 여러 겹으로 해 입는 것을 자랑으로 하였고, 걸치마는 8幅에 길이가 대단히 길어서 보행시에는 겨드랑 밑에 끼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고귀한 집안의 褙接들은 치마 한벌 만드는데도 옷감이 7~8필이나 들었다고 한다.

『高麗圖經』에서 보면, 고려 婦女들은 袴 즉 바지를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袴는 속옷으로 입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때에 따라서는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만을 입는 경우도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袴는 안을 生絹로 받치고 겉을 文綾 같은 絹織物로 만든 통 넓은 寬袴로서의 『겹바지』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해 둘 것은 『高麗圖經』 供張條에 나오는 紵裳에 관해서이다. 이에서 보면 紵裳의 제도는 겉과 안이 6폭이며 허리에 橫帛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띠를 2개 달았는데, 그것은 목욕할 때 입는 옷이라고 하였다.

## 2) 民庶女服

우리나라의 服飾이 중국의 服飾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복식의 이중구조 속에서 변천해 오는 가운데, 가장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목수해 온 것은 서민층에서였다.<sup>52)</sup>

복식은 계급적인 면에서 상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층에서도 상류계급에 쫓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음은 부인 못할 것이다. 다만 하서민의 복식은 번곤과 까다로운 禁制에 의하여 이의 발전을 沮害당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시대에서나 적용된다.

『高麗圖經』에 보이는 民庶女服은 다음과 같다.

### (1) 頭飾

출가하기 전 여자는 紅羅로 머리를 묶고 그 餘髮은 뒤에 내리는 그러한 修髮은 貴賤없이 동일하였다 하니, 民庶女服에 있어서도 그 頭飾은 이와 같았다고 할 것이다.

『쓰개』에 있어서도 蒙首는 서민층 여인들도 이를 하였다. 그러나 아래로 내리지 않고 머리 위에 접어 올렸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귀부녀와 달라서 일을 해야만 하는 관계로 거치장스러운 옷을 얻기 위하여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高麗圖經』 여복 賤使조에서 보면, 細民 즉 영세민의 집에서는 蒙首가 없는데 그것은 값이 白金 1근에 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할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지 금제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 하고 있다.

### (2) 服飾

『高麗圖經』에서 보더라도 貴婦條에는 남자와 같은 白紵袍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으나 卑妾조나 賤使조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전기한 바 蒙首에 있어 일을 하는 관계로 아래로 내리지 않고 머리 위에 접어 올려야만 했다고 하면, 일하는데 불편했던 白紵袍를 상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추측하건데 卑妾조에 官府의 媵國官의 妾, 民庶의 처, 잡역을 하는 婢는 복식이 相類

51)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대출판부, 1975, pp. 214~215.

52)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대출판부, 1975, p. 217.



하다 하였으니, 媵妾이 윗사람인 貴婦服을 따랐다고 하면 역시 같은 白紵袍를 입었을 것이고 民庶의 처 또한 간혹 입기도 하였을 것이나, 勒巾에 따른 수식만은 스스로 다르고 등차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舊俗 여자 의복에 白紵衣, 黃裳은 위는 公侯貴家로부터 아래는 民庶의 妻妾에 이르기까지 분별이 없었다고 하였거니와, 이것은 상하 부녀의 通服하는 바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유인 白紵衣의 변천과정은 貴婦女服에서와 같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裳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하겠는데, 그들은 걸어다닐 때 치마를 걸어 올리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民庶 부녀들도 旋裙이라는 것을 입었다.

끝으로 貴婦女服에서 밝힌 바 부채를 손에 들고 있을 때에는 손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 하여 흔히 붉은 주머니로 손을 가리웠다 하였고, 이를『高麗圖經』에서는 女服 婢妾조에 서 기술하고 있어, 民庶女服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이 있었지 않았나 하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宮府, 國官의 妾에 한한 일이었는지 民庶女服에서까지 이리했다고는 볼 수 없다.<sup>53)</sup>

## 2. 高麗 佛畫를 통해 본 女子服飾

고찰하고자 하는 高麗 佛畫는 총 5점이고 佛畫에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는 女人은 총 19명이다. 그 중 그림의 내용이나 착용의복, 머리형태 등에 따라 신분을 王妃, 侍女, 一般女人, 供養物을 들고 가는 女人으로 나누었다.<sup>54)</sup>

### 1) 觀經變相圖

統一新羅 이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성행한 佛教信仰은 阿彌陀信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阿彌陀信仰은 淨土三部經인 阿彌陀經, 無量壽經, 觀無量壽經 등에 의해 성립된 신앙인데, 살아서는 壽命長壽하고 죽어서는 極樂往生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sup>55)</sup>

내용을 그림으로 압축 묘사한 것이 觀經變相圖이며, 그중 이 經이 說해지는 동기를 그린 것이 觀經序品變相이다.<sup>56)</sup>

#### (1) 觀經序品變相<그림 5>

##### ① 내 용

이 그림은 忠宣王 4年(1312年)에 그려졌으며, 현재 일본 京都市 大恩寺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觀無量壽經 가운데 序品の 내용을 圖像化한 序品變相이다. 즉 觀經을 說하게 된 劇的인 內容을 3장면으로 압축 묘사하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아사세태자가 굶어 죽어가는 父王 빈비 사라왕에게 음식을 가져가는 母后를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 하자 月光 등의 大臣이 극구 만류하는 場面이 펼쳐진다.<sup>57)</sup>

畫面의 上部는 2층누각 위에 앉아, 기자굴산의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면서 괴로움에 벗

53)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대학출판부, 1975, p. 219.

54) 金道成, 高麗佛畫에 나타난 女人服飾考察, 高大大學院, 1993, p. 54.

55) 文明大, 도관해설, 「고려불화」, 서울:중앙일보사, 1981, p. 232.

56) 文明大, 앞책, p. 232.

57) 文明大, 앞책, p. 232.



<그림 5> 觀經序品變相圖 I 高麗佛龕

어나길 간절히 기원하자 부처님이 날아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2층 누락에는 위대휘 王妃가 香爐가 있는 빨간 탁자를 등지고 누마루 건너 구름 속에 정좌한 석가삼존불을 향해서 울면서 호소하고 있다.<sup>58)</sup>

② 觀經序品變相圖 I 에 나타난 女子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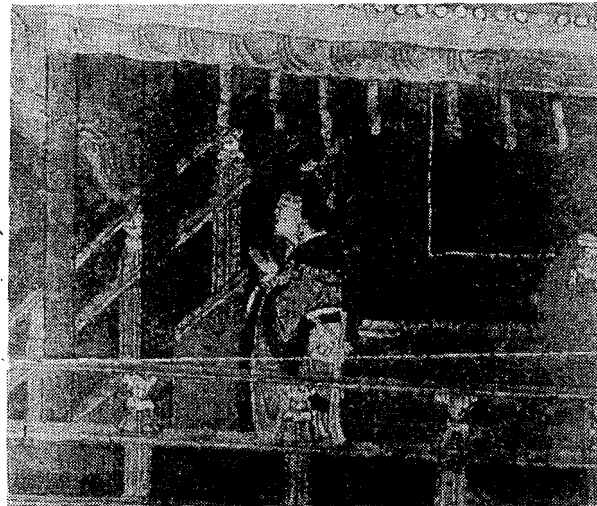
① 王妃- I <그림 5>

<그림 6>은 <그림 5>의 우측 상단에 있는 2층 누각을 확대한 것이다.

위에는 무릎 정도 길이의 황색 大袖袍를 입었다. 어깨와 등에는 雲肩을 佩用한 것으로 보인다. 雲肩은 가장 일찍이는 唐代에 吳道子の「送子天子圖」<그림 6>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唐에서 五代, 宋, 明, 淸에까지 流行했다.

袍의 소매부리와 端에는 玄綠色의 선을 둘렀고, 역시 玄綠色의 袂를 했다. 袂는 우리나라 문헌 중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隋, 唐, 宋에 걸쳐 있었으며 唐中期에 유행했다. 高麗말에서 朝鮮초의 사람인 河演부인상을 보면 袂가 나타나는데 따라서 袂는 統一新羅때에 唐으로 부터 유입되어, 고려말 혹은 조선조까지 작용되었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허리에는 白色 넓은 띠를 하고 그 위에 玄綠色의 좁



<그림 6> 觀經序品變相圖 I. 王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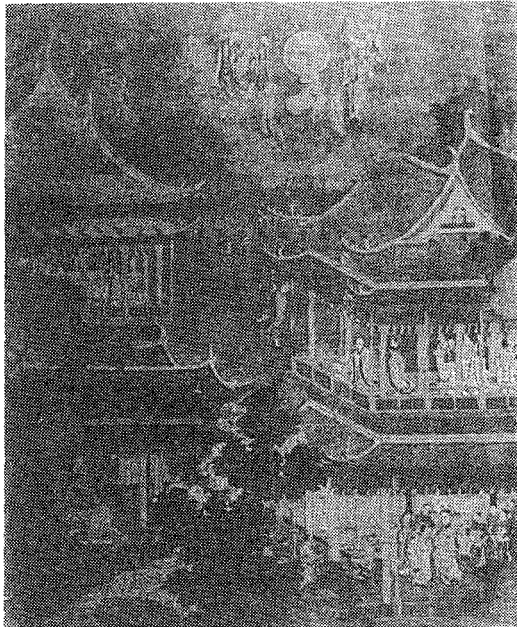
58) 文明大, 앞책, p. 232.

은 띠를 하였으며 허리 뒤로 긴 組를 늘어뜨렸다. 백색의 넓은 띠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組는 唐代 女人服飾에서도 볼 수 있다. 袍속에는 白色의 襦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밑에는 주름이 풍성해 보이는 흰색 裳을 입었다. 이는 三國時代 高유의 길이가 길고 주름이 풍성한 裳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頭飾은 兩博鬚에 花冠을 썼다. 채근석은 이 花冠이 “朝鮮時代의 띠구지의 形態와 너무도 흡사하다”<sup>59)</sup>고 했는데, 이러한 花冠으로 부터 영향을 받아 朝鮮時代 띠구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 (2) 觀經序品變相圖 2 <그림 7>

### ① 內 容



<그림 7> 觀經序品變相圖 2

에는 紅色의 文樣이 있는 半臂를 입었다. 袖口에는 白色의 주름 裝飾이 있는 데 이는 唐과 五代之의 女人像(특히 樂舞人)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唐과 五代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60)</sup>

袍의 端에는 검정색에 가까운 색의 선이 <그림 9>에서는 보이나 <그림 8>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袍의 안에는 大袖의 白色 襦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襦의 袖口에도 검정색에 가까운 짙은 색의 선이 있으며, 綠色의 표를 두르고, 허리뒤에는 白色 옷이 보이며, 그 밑으로 붉은 색의 매듭진 組가 늘어져 있다. 組는 狐尾禪衣라 하여 中國 漢代부터 王妃 등 貴婦女 服飾의 華

<그림 5>와 마찬가지로 觀經序品の 內容을 圖解한 것으로 左右對稱的 構圖를 하고 있다.

오른쪽 윗 건물은 2층 누각식 宮殿인데, 빈비사라王과 위데휘 王妃가 합장하며 서 있고, 건너편 공중에는 尊子들이 날아와서 왕을 위해 설법하고 있다. 王과 王妃뒤에는 많은 侍女(五百名)가 그려져 있다. 그림의 왼편에는 2층 누각 건물이 있고 건물 안에는 위데휘 王妃가 공중의 부처님을 향해서 울면서 호소하고 있다. 王妃뒤에는 구름에 가린 侍女 5명이 보인다.<sup>60)</sup>

### ② 觀經序品變相圖에 나타난 女子服飾

#### ① 王妃-2 <그림 8>, <그림 9>

<그림 7>의 상면 왼쪽과 오른쪽에는 위데휘 王妃가 우측과 좌측으로 두 번 나타나는데 같은 服飾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그림을 綜合해서 보면 위

59) 채근석, 고려불화에 나타난 고려 복식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7, p. 25.

60) 文明大, 앞책, p. 233.

61) 金眞成, 高麗佛畫에 나타난 女人服飾考察,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 p. 60.



<그림 8> 王妃-2 左



<그림 9> 王妃-2 右

麗함을 나타내기 위한 裝飾으로<sup>62)</sup> 이도 그와 같은 種類라고 생각된다. 半臂위에는 玄綠色의 袂를 두루고 있는데, 袂는 統一新羅時代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統一新羅時代에 唐에서 流入된 것이다. 즉 統一新羅時代에 唐에서 들어온 服飾이 高麗末까지 存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밑에는 주름이 풍성하고 바닥에 길게 끌리는 裳을 입었다. 이 裳은 <그림 5>의 王妃의 裳과 흡사하다.

머리는 높이 올려 高髻를 하고 花冠을 쓴 것으로 보인다. 周錫保의 「中國古代服飾史」에 따르면 花冠은 唐 및 五代의 一般的인 頭飾으로<sup>63)</sup> 宋代에 새롭게 創造되었다가 皇祐(1049년)에 禁止되었지만, 후에 다시 流行되었다. 따라서 高麗의 花冠은 唐과 宋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高髻는 唐 및 宋代에 유행한 것으로, 역시 唐 및 宋의 影響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sup>64)</sup>

#### ㉔ 侍女<그림 10>

좌측에서 첫째, 넷째, 일곱번째 侍女의 服飾이 비슷하다. 셋 다 文樣이 있는 붉은 襦에 역시

62) 杉本正年, 「東洋服飾史論考」, 古代編, 文化出版局, p. 153.

63)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64) 金眞成, 高麗佛畫에 나타난 女人服飾考察,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93, p. 63.



<그림 10> 侍女

文樣이 있는 주름이 풍성하고 길게 끌리는 白色裳을 입고 있는데, 좌측에서 첫번째 侍女의 다음 인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나 좌측에서 넷째, 일곱번째 시녀는 치마허리가 襦 위로 올라 오도록 입고 뒤에는 狻尾禪衣를 늘였다. 襦 위에는 목 뒤로부터 첫번째 시녀를 흰색, 넷째, 일곱번째 侍女는 옅은 분홍색의 袂를 두르고 있다.

한편 좌측에서 다섯번째 侍女의 襦를 보면 길이가 臀部線 정도로 짧다. 1302년 阿彌陀佛腹裝貴物을 보면 袍나 上衣에 고름이 생기기 전에 매듭 단추로써 여미어져 있는데, 다섯번째 侍女의 襦는 기둥에 가려져 고름이 달렸는지, 매듭단추로 여미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길이가 짧아지면서 고름이나 매듭단추가 생겼으리라 생각된다. 頭飾은 기둥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高髻이다. 이는 唐代 女人들의 頭飾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唐의 影響을 받은 統一新羅時代의 頭飾과 宋의 影響을 받은 수식이 14世紀 무렵까지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4世紀 무렵에는 統一新羅時代부터 내로온 唐의 影響을 받은 服飾과 송의 影響을 받은 복식, 짧은 襦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6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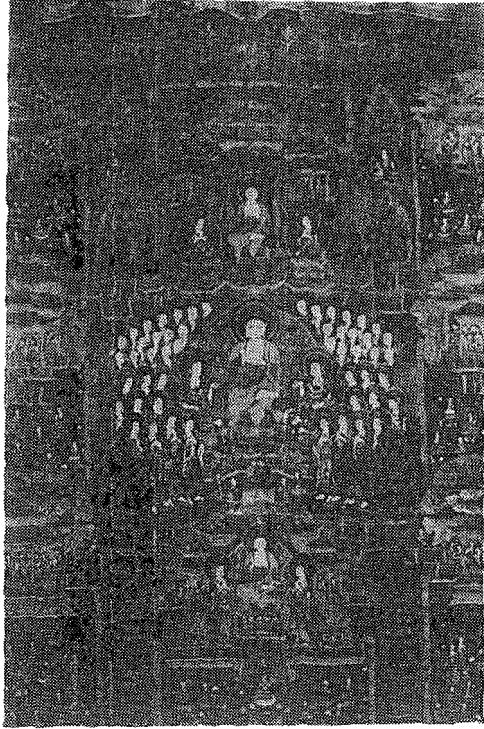
### (3) 薛冲, 李筆 觀經變相圖(淨業院)<그림 11>

#### ① 內 容

忠肅王 10年(1323年)에 그려진 것으로 日本 東京 智恩院에 所藏되어 있다. 석가 부처님이 16가지 極樂世界이 장엄함을 觀相하게 함으로써 위대휘 王妃와 그 일행을 救濟하는 내용을 圖解한 觀經變相의 本變相이다.<sup>66)</sup>

65) 金眞成, 앞책, p. 65.

66) 文明大, 앞책, p. 233.



<그림 11> 薛冲, 李筆 觀經變相圖(淨業院)

「高麗圖經」貴婦條에는「白苧로 袍를 만들어 입는데 거의 남자의 袍와 같다. 가을과 겨울의 치마는 간혹 黃絹을 쓰는데, 어떤 것은 진하고 어떤 것은 얇다. 公卿大夫의 妻와 士民의 妻와

② 薛冲, 李筆 觀經變相圖(淨業院)에 나타난 女子服飾

<그림 12>는 <그림 11>의 중간보다 약간 아랫 부분이다. 僧 2명과 女人 2명이 있다. 2명의 女人은 王妃나 侍女 등 宮中 女人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一般 女人으로 分類하고, 편의상 왼쪽의 여인을 一般 女人 1로, 오른쪽의 女人을 一般 女人 2로 표시한다.(그림 12)

一般 女人 1은 위에는 綠褐色의 文樣이 있는 大袖袍를 입었다. 안에는 보다 얇은 갈색의 작수형 우임의 襦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둥근 무늬가 그려진 黃褐色의 裳을 입었는데, 裳위에 端에 黑褐色 襪이 있는 붉은 옷이 그려워져 있고, 그 위에 흰색 끈이 보인다. 一般 女人 2는 文樣이 있는 綠褐色의 襦를 입었다. 깃과 袖口에는 짙은 褐色의 선이 있고 袍안에는 보다 얇은 褐色의 襦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裳은 文樣이 있는 붉은 色으로, 襦 위로 올려 입었다.



<그림 12> 薛冲, 李筆 觀經變相圖(淨業院)

遊女の服飾色에서 구별이 없다。」라는 설명이 있다. 一般女人 1의 裳色은 「高麗圖經」에 나오는 가을, 겨울에 입었다는 진한 黃絹과 흡사하다. 또 裳의 풍성하고 부드러운 주름으로 보아 폭이 넓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裳위의 黑褐色 襟이 달린 붉은 옷은 정확히 알 수 없다. 一般女人 2의 袍에는 一般女人 2와 달리 소매 끝에 襟이 있다. 一般女人 1의 袍에는 襟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高麗時代에는 襟이 없어져가는 過渡期로 襟이 있는 옷과 襟이 없는 옷이 共存했다고 생각된다. 一般女人 1과 2의 袍에 모두 동정으로 보이는 옅은 褐色 옷감이 있다.

高麗時代 裳에 대해서 「高麗圖經」에 「두르는 치마를 입되 8폭으로 만들어 거드랑이에 높이 치켜 입는데, 주름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一般女人의 2의 裳을 보면 이와 흡사하게 유를 거드랑이쯤까지 높이 올려 입었으며 폭도 풍신하게 넓어보인다. 또 唐代 女人들의 服飾과 흡사하게 襦를 裳안에 넣어 입고 있다. 이는 長襦에 띠를 매어 입던 형식에서 統一新羅時代에 唐의 服飾形態로 變化한 것이 高麗末에 이르기까지 繼續된 것이라 생각된다. 裳色에 대하여 「高麗圖經」에 王妃와 夫人은 紅色을 崇尚하여 더욱 그림과 繡를 더하되, 官吏와 庶民의 妻는 감히 이를 쓰지 못한다라는 대목이 있다. 따라서 一般女人 2의 裳色은 金色 무늬가 보이는 紅色 裳인 것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身分이었던 것 같다.

一般女人 1의 頭飾은 雙垂髻이다. 新羅에서도 文武王때 唐의 服飾의 着用을 命하면서 頭飾 또한 모방하였을 것이므로, 統一新羅時代를 거쳐 高麗末까지도 存在하게 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一般女人 2의 頭飾은 일부는 올려 위가 불룩하고 나머지는 아래로 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15世紀 申末舟 契會圖에 나타난 女人들(妓女라고 생각된다.)중 특히 申末舟 左側과 右側에 앉은 女人 두명의 頭飾과 흡사하다.<sup>67)</sup>

## 2) 彌勒下生經變相圖

彌勒思想은 阿彌陀思想과 함께 淨土思想을 대표하고 있다. 彌勒思想은 彌勒上生經에 의한 兜率天往生思想과 彌勒下生經에 의한 龍華樹下成佛의 이른바 메시아 사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上生 중 兜率往生思想은 보다 체계화되고 보다 深化되어서 眞宗 또는 法相宗이란 大宗派로 널리 믿어졌다. 高麗時代에 法相宗이 盛行했던 단적인 實例가 彌勒下生變相圖이다.

### (1) 彌勒下生經變相圖(梅前筆)(그림 13)

#### ① 內 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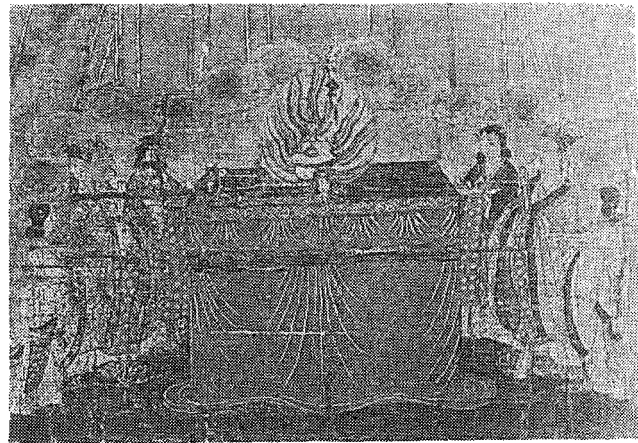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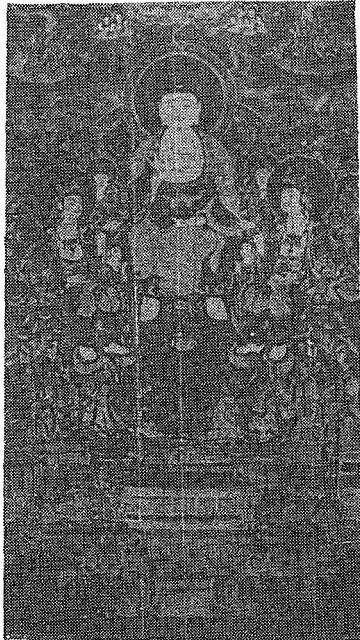
이 그림도 忠定王 2年(1350年)에 그려진 것으로, 兜率天의 彌勒이 下生하여 龍華樹 아래에서 成佛하고 당시까지 救濟되지 못한 모두 大衆을 成佛시킨다는 彌勒下生經의 內容을 圖解한 것이다.<sup>68)</sup>

### (2) 彌勒下生經圖에 나오는 女子服飾

〈그림 14〉는 〈그림 13〉의 하단을 확대한 것이다. 향료 앞에는 좌우 4명이 보이는데 그중 4명은 侍女로 생각된다. 4명의 侍女를 왼쪽부터 侍女 8, 9, 10, 11라고 부르기로 한다. 侍女 8과

67) 金眞成, 앞책, p. 69.

68) 文明大, 앞책, p. 236.



<그림 14> 彌勒下生經圖에 나오는 女子服飾

<그림 13> 彌勒下生經變相圖  
(梅前筆)

11의 衣服이 비슷하다. 즉 둘 다 미색의 大袖袍를 입었는데, 袖口와 밑단에 짙은 褐色襖이 있다. 허리에는 흰색의 띠를 두르고 뒤로 狐尾禪衣를 늘였다. 袍와 同色裳을 입고 裳위에 붉은 색 옷을 돌렸는데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侍女 9는 엷은 褐色의 大袖袍를 입었고, 侍女 10은 黑褐色 大袖袍를 입었다. 侍女 9, 10 모두 흰색 裳을 입고 손과 팔에 금박이 있는 붉은 옷을 가지고 있는데 「高麗圖經」을 보면 「부잣집에서는 큰 자리를 깔고 侍婢가 곁에 들어서서 각각 巾과 淨瓶을 들고 있는데 비록 더운 날이라도 괴롭다 하지 않는다」고 있다. 따라서 侍女들이 손에 두른 붉은 옷과 「高麗圖經」에 나오는 巾이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侍女 4명의 머리형태는 모두 雙垂鬢이다.<sup>69)</sup>

### 3) 水月觀音圖

觀音菩薩은 觀世音菩薩의 글말인데 衆生濟度を 몸소 실천하는 慈悲의 化身이다.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친근감과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인기절정의 菩薩이었다. 水月觀音像 佛畫가 高麗時代에 流行했는데 특히 高麗 後期에 많이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sup>70)</sup>

#### (1) 水月觀音圖<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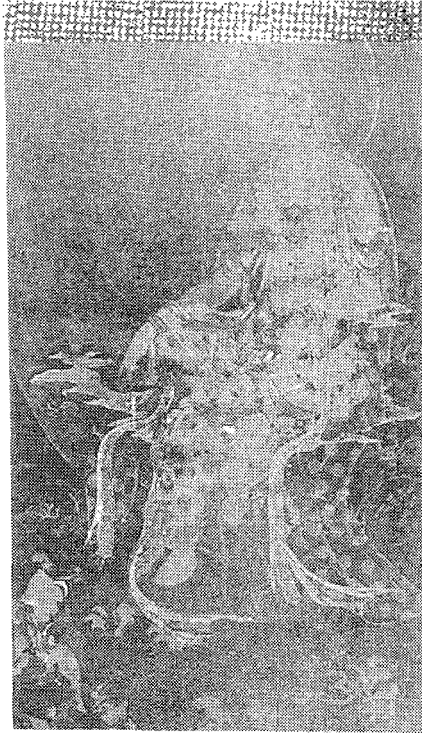
##### ① 內 容

정확한 製作年代는 알 수 없으나 技法上 忠肅王 10年 1323년에 製作된 徐九方筆 水月觀音

69) 金眞成, 앞책, p. 74.

70) 文明大, 앞책, pp. 245~246.





<그림 15> 水月觀音圖



<그림 16> 공양물을 들고 가는 여인 1

圖와 비슷하며 이 水月觀音圖가 약간 앞서 製作된 것이 아닌가 한다.<sup>71)</sup>

(2) 水月觀音圖(그림 15)에 나타난 女子服飾

㉠ 공양물을 들고 가는 여인 1(그림 16)

<그림 16>과 <그림 17>은 <그림 15>의 좌측 하단을 확대한 것이다. 공양여인 1은 文樣이 있는 얇은 褐色의 大袖袍를 입었다. 袖口에는 綠褐色의 襟이 있고, 綠色의 袂를 돌렸다. 어깨에는 雲肩위로 綠色의 매듭을 한 組를 늘어뜨렸다. 袍안에는 흰색 大袖의 襦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裳은 흰색이며 袍위에 붉은 직물을 돌렸는데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다. 頭飾은 高髻에 각종 寶石으로 裝飾했다. 머리 뒤쪽에는 步搖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步搖는 唐代에 전성기를 이루던 수식이다. 이 여인은 雲肩, 상박의 팔찌, 大袖袍, 步搖 등의 차림새를 보아 상당히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던 것 같다.<sup>72)</sup>

㉡ 供養物을 들고 가는 女人 2, 3(그림 17)

왼쪽 女人을 供養女人 2, 오른쪽 女人을 供養女人 3으로 부르기로 한다. 供養女人 2은 綠褐

71) 文明大, 앞책, pp. 248~249.

72) 金眞成, 앞책, p. 77.



<그림 17> 供養物을 들고 가는 女人 2, 3

색의 文樣이 있는 袍를 입었다. 袍위에 붉은 색으로 띠를 메고 組를 옆중심선보다 뒤쪽으로 늘어뜨렸다. 이 組는 <그림 10>의 侍女들이 裳뒤에 늘인 組와 흡사한 것으로 역시 唐의 影響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供養女人 3은 文樣이 있는 얇은 노랑색의 襦를 입었다. 길이는 짧아져서 臂部線 정도이며, 앞이 터진 것으로 보아 길이가 짧아지면서 帶가 없어지고, 고름이나 매듭단추를 단 것으로 생각된다. 襦에 襖은 없고, 襦안에는 흰색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端에 흰색 선이 있는 文樣이 있는 붉은 裳을 입었다.

供養女人 3의 頭飾은 隨馬髻로 보이며 각종 寶石으로 裝飾하고 붉은 띠를 맺다. 隨馬는 唐代 流行한 頭飾으로 統一新羅時代에 唐으로부터 들어와서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供養女人 2는 高髻를 한 것으로 보이며 각종 寶石으로 裝飾하고 붉은 띠를 맺다.<sup>73)</sup>

위에서 살펴본 高麗佛畫에 나타난 女人服飾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王妃의 修飾은 兩博髻, 高髻에 각기 다른 花冠을 썼다. 王妃 1은 상의로는 겉에 大袖袍, 안에 저고리를 입고 雲肩, 袂, 孤尾禪衣를 했으며 王妃 2는 반비를 입은 모습이 唐代 舞踊女の 衣服과 흡사한 것이 특이하다. 下衣들 王妃 1과 王妃 2가 모두 백색 裳을 입고 있다.

侍女들의 修飾은 주로 高髻와 雙垂髻로 나타난다. 이는 唐, 宋代에 流行하던 양식이며 統一新羅시대 土俑에도 나타난다. <그림 10>과 <그림 14>에 나타는 侍女 10명의 裳은 모두 백색으로, 궁중에서 侍女들은 백색 裳을 즐겨 입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裳을 저고리 위로 입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통일시절 陸城洞 土俑에도 나타나며 「고려도경」에, 「두르는 저마를 입되 8쪽으로 만들어 겨드랑이에 높이 치켜 입는데, 주름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과는 일치한다. 侍女들의 上衣는 현록색, 붉은 색, 분홍색 등의 저고리 혹은 대수포를 입고 唐代에 流行하던 孤尾禪衣를 하고 袂를 들렀다. 저고리는 길이가 둔부선까지 오는 것과 裳의 안에 넣는 것 2종류로 나타난다. <그림 17>의 侍女들이 든 붉은 옷감은 의례용으로 들

73) 金眞成, 앞쪽, p. 78.

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형태나 역할은 알 수 없다.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의 여인들의 修飾은 高髻, 墮馬髻, 雙垂髻로 역시 唐, 宋代에 流行하던 양식이다. 裳의 色은 白色, 붉은 색, 황갈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붉은 색과 황갈색은 「고려도경」에 「가을과 겨울의 치마는 간혹 黃絹을 쓰는데, 어떤 것은 진하고 어떤 것은 옅다」, 「王妃와 夫人은 紅色을 숭상하며 더욱 그림과 수를 더하되, 관리나 서민의 처는 감히 이를 쓰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侍女들의 修飾은 唐, 宋代에 流行하던 高髻, 雙垂髻이고, 둔부선 정도의 짧은 저고리, 치마 속으로 넣어 입은 저고리, 狐尾禪衣, 袂, 주름이 풍성하고 긴 치마 모두 唐, 宋代의 복식과 흡사하다. 공양여인들과 일반 여인들의 修飾 역시 高髻, 墮馬髻, 雙垂髻 등으로 唐, 宋代에 유행하던 것이고 저고리 위에 裳을 입은 점이나 홍색과 황색裳이 나타난 唐代에 홍색, 자색, 황색, 녹색裳이 유행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흡사하다.

한편 宋의 服飾은 唐의 服飾을 계승한 것이므로 宋代에만 특별히 나타난 복식을 제외하고는, 唐, 宋代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에 宋으로부터 유입되었다기보다는 통일신라시대에 唐의 복식을 들여오면서 유입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高麗末에서 朝鮮初까지 생존했던 河演夫人(李康七, 「名人肖像大鑑」(그림 18))과 趙胖夫人(國立博物館所藏(그림 19))의 像, 申末舟 契會圖중 申末舟 左側에 앉은 女人像(그림 20)과 右側에 앉은 女人像(그림 21), 高麗時代 나한도의 시종드는 女人과 동자像(朝鮮美術博物館所藏, (평양))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림 18〉 河演夫人像(이강칠, 명인초상대감)



〈그림 19〉 趙胖夫人像(국립중앙박물관소장)



<그림 20> 申末舟 左側에 앉은 여인  
(신말주 계회도)  
「한국복식 제10호」



<그림 21> 申末舟 右側에 앉은 여인  
(신말주 계회도)  
「한국복식 제10호」

河演夫人 초상화는 상반신만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服飾을 정확히 살펴 볼 수 없으나 襟은 보이지 않지만 上古時代의 袍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여밈이 없이 벌리어 입고, 소매도 넓직하고 길음한 듯 보이고, 襦는 紋樣이 있으며 착장방법은 裳안에 입어 囊이 위로 올라 오게 하여 唐代, 宋代의 襦착용방법과 유사하다.

趙胖夫人像의 袍도 上古時代의 것과 흡사하여 깃, 도련, 수구에 까지 異色襟이 둘러져 있으며 着裝法도 河演夫人의 것과 흡사하다. 襦의 襟은 左襟이고, 襦의 길이는 허리아래 길이다.

한편 申末舟 契會圖 右側에 앉은 女人과 左側 女人像은 통수형의 長襦를 착용하였다.

또한 高麗시대 나한도의 시중드는 女人과 동자像의 시녀는 紅襟의 長襦를 착용하고 帶를 앞에 매었다. 上古時代의 우리의 襦와 거의 유사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 高麗의 女人服飾은 統一新羅時代 唐의 服飾을 도입 上流層 女人들이 착용하여 고려말까지 착용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서민층도 우리의 上古時代 服飾을 그대로 착용하여 오다가 襟이 없어지고 襦의 길이도 짧아지므로서 웃고름이 생겼으리라 본다.

즉 唐, 宋風의 服飾樣式을 高麗初부터 상류층이 착용하기 시작하여 고려말까지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서민층에서는 우리 上古時代 服飾을 착용함과 동시에 上流層의 唐, 宋의 服飾이 共存하였던 服飾의 二重構造 現狀이 형성되었으리라 본다.

高麗佛畫를 통해 본 女子服飾은 머리 형태가 高髻, 隨馬髻, 雙垂髻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唐, 宋代 유행하던 頭飾이다.

王妃의 半臂, 袖口에 주름이 있는 옷, 袖口에 비취모가 달린 옷은 모두 唐代 女人服飾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2> 고려시대 나한도의 시중드는 여인과 동자  
朝鮮美術博物館所藏(평양)  
「北韓文化財圖錄」, 문화재  
관리국 문화연구소, 1993.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裳의 경우 백색, 황갈색, 붉은 색 등이 나타난다.

唐, 宋服飾의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온 고려복식이 元의 복속기, 明의 복속기를 거쳐 마침내 조선조 복식이 정립되었던 것이다.

侍女와 일반 부인이 襦를 裳안에 넣어 입고 허리에 띠를 매고 紐를 늘린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唐代 女人의 의복 형태이다.

宋의 服飾은 唐의 服飾을 계승한 것이므로 宋代에만 특별히 나타난 服飾을 제외하고는, 唐, 宋代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에 宋으로부터 유입되었다기 보다는 통일신라시대에 唐의 복식을 들여오면서 유입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統一新羅時代に 唐으로부터 들어온 襦를 裳안에 넣어 裙腰를 높이 올려 입은 것, 半臂, 袂, 雲肩, 狐尾禪衣 등의 女人服飾이 1300년대 高麗에서도 存續되고 있었다고 본다.

侍女와 공양물을 들고 가는 女人의 襦의 길이가 臀部線 정도로 짧아지고 옆이 터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고름이나 매듭단추를 이용해 옷을 여뒀던 것으로 생각된다.

裳의 형태는 그림에 나타난 것이 모두 길이가 길고 주름이 풍성한 모양으로, 「高麗圖經」의 기록과 일치한다. 當時에는 풍성한 주름의 길게 끌리는 裳이 유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302년 阿彌陀佛服裝에 있었던 동정이 일반 여인의 襦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동정이 존재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의복의 색은 上衣의 경우, 황색, 백색, 붉은 색, 분홍색, 미색, 노랑색, 녹갈색, 옅은 갈색

## V. 結 論

兩宋 통치사상은 理學 즉 道學이었다. 이와 같은 철학체계가 미학이론에도 영향을 끼쳐 송나라 때에 理性의 美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는 흰 담장, 검은 기와가 본 바탕색이 되었고, 회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水墨淡彩였으며, 도자기에 있어서는 單色추가 뛰어났다. 또 복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당나라 때의 농염하고 화려한 색채의 반동으로 淡雅하고 고요한 기풍을 이룩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복식의 간단, 소박, 청결, 자연스러움을 제창하였고, 또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것을 반대하였다.

宋 服飾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당나라에 미치지 못하였다. 복식채색과 패식도 또한 당나

라에 비하여 풍부하고 화려하지 못하였다.

고려의 복식을 『高麗圖經』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해마다 信使를 보내고 누차 襲衣를 받아옴으로써 華風에 점점 젖어 옷이 아름다워지고 송의 제도를 좇고 있다고 하였고, 徐兢의 來朝한 仁宗 元年(1123년)에는 그의 주목을 끌만큼 제도면에서 송을 좇고 있었다 하고 있다.

고려의 여자복식에 있어서의 宋服飾의 영향은 송나라 使臣 劉담와 吳拭이 초빙되어 와서 관에 있었는데, 宴會에 鄉粧의 倡女를 階上에 불러올려 그 입고 있는 闊袖衣·色絲帶·大群을 보고 말하기를, 三代의 복식이 여기에 다 있음은 意外라 하면서 경탄하였다 함은 고려의 여자복식이 宋制를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의 三代는 중국의 수, 당, 송을 가르키고 있고, 闊袖衣·色絲帶는 중국복식이 영향을 받은 『활옷』, 『원삼』같은 宮樣의 여인 예裝이라고 생각된다 하였거니와 이렇듯 그 복식에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그대로 고려시대에까지 전승되어 그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셋은 너무나도 그들 복식과 닮은 것이 있었다.

상기한 바, 그 예장에 있어 중국 三代의 복식이 襲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徐兢의 『高麗圖經』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송의 여자복식이 고려의 여자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 參考文獻

1. 金相泰, 『한국사강좌』, 서울:진성사, 1990.
2. 김중서, 『고려사절요』, 서울:을유문화사, 1960.
3. 김동국, 『高麗圖經의 복식사적 연구』. 연세논총, 제7집.
4. 정인지, 『고려사』, 서울:연희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61.
5. 震旦학회, 『한국사』, 서울:을유문화사, 1959.
6. 최남선, 『고사통』, 경성:삼국당, 1943.
7. 徐兢, 『宣和奉使 高麗圖經』, 경성:근세서점, 1932.
8. 왕우청, 『中國服裝史綱』, 대북:중화중화대전적, 중화민국.
9. 이춘식, 『중국고대사전개』, 서울:신서원, 1990.
10. 이춘식, 『중국사서설』, 서울:교보문고, 1991.
11.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대학출판부, 1975.
12. 임명미, 『중국고대복식연구』, 서울:경춘사, 1988.
13. 주식보, 『중국고대복식사』, 1983.
14. 深宗文편, 『中國古代服飾研究』, 南天書局, 有限公司, 民國七十七年.
15. Zho:Xun, Gao Chunming,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중국:학림출판사, 1987.
16. 고춘명, 『중국역대부녀장식』, 중국:상해학림출판사, 삼연서점유한공사, 연합출판, 1988.
17. 華梅著, 박성실, 이수웅 역, 『中國服飾史』, 서울:경춘사, 1992.
18. 장탁화준, 민병훈 역, 『동서문화사의 교류』, 서울:민족문화사, 1961.
19. 룩관현, 송기중 역, 『유목민족문화사』, 서울:민음사, 1990.

20. 작끄레르네, 이동운 역, 『동양사통론』, 서울:법문사, 1989.
21. Michale Sullivan, 손정숙 역, 『중국미술사』, 형설출판사, 1991.
22. 온필동, 강실식 역, 『중국회화 비평사』, 서울:미진사, 1989.
23. 갈로저, 강선미 역, 『중국회화이론사』, 서울:미진사, 1989.
24. J. 케힐, 조선미 역, 『중국회화사』, 서울:일화당, 1981.
25.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9.
26. 朴京子, 『福州南宋黃昇墓』出土服飾研究, 生活文化研究, 第三輯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소, 1989.
27. 柳喜卿, 『1302년 阿彌陀佛服藏物の 調査研究』, 溫陽民俗博物館, 1991.
28. 金眞成, 『高麗佛畫에 나타난 女人 服飾 考察』,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29. 崔금석, 『高麗佛畫에 나타난 高麗服飾의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7.
30. 文明大, 도판해설, 『고려불화』, 서울:중앙일보사, 1981.
31. 『북한문화재도록』, 문화재관리국 문화연구소, 1993.
32. 金英淑 編, 『韓國服飾史辭典』, 民文庫, 1988.